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
알렘바이블 대본집

Ep.025

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

(출애굽기 32, 34장)

몇 주가 지나도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
이스라엘 백성들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.
불안한 마음에 그들은 모든 걸 잊어버리고 말았죠.

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던 것도
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
모세에게 약속했던 것도 말이에요!
급기야 사람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.

“모세가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
산에서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한 게 틀림없소.
더 이상 무턱대고 모세만 기다릴 수 없단 말이에요!”

**“맞아요, 맞아! 이제 우리의 리더가 없어졌으니
대신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주세요!
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!”**

**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몰려들자
아론은 두려워졌어요.
예전에 마실 물이 없을 때 사람들이
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것도 생각났죠.**

**그래서 결국 아론은 해서는 안 될 말을
해버렸습니다!**

**“알았소, 알았소. 진정들 하시오
가서 여러분 가족들이 가진 금으로 만든
귀고리들을 모아 오시오.
내가 그걸로 우리의 신을 만들겠소.”**

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귀고리를
가져오자 제법 많은 양의 금이 모였어요.

아론은 그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죠.
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이
밝아져서 소리쳤어요!

**“우리의 신이 여기 있습니다!
우릴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주신
우리의 신이 여기 있습니다!”**

여러분, 지난 이야기에 나온
하나님의 십계명을 기억하나요?

그중 첫 번째는, “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기.”
두 번째는, “우상을 만들지 않기.”였어요.

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식간에
그 두 가지 계명을 어겨 버린 거죠.

그걸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
몹시 화가 나셨어요.
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.

“모세야. 저 아래서 백성들이
나에게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.
이제 나를 말리지 말아라.
저자들이 나를 노엽게 만들었으니
내가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니라.”

깜짝 놀란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.

**“주님,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.
먼 옛날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
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.
“너희 자손을 밤하늘의 별처럼
셀 수 없이 많이 하겠다”구요.
그리고, 이대로 저들을 없애버리시면
이집트 사람들은 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...”**

**모세의 간절한 외침에
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어요.**

**모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부랴부랴
산에서 내려갔죠.
손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
새겨주신 돌판을 들고 말이에요.**

모세가 반쯤 내려오자
산 중턱에서 기다리던 여호수아가 말했어요.

“모세님 저 아래서 백성들이
서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!”

그러자 모세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.

“싸우는 소리가 아니다.
내가 듣기에 저건 백성들이
신이 나서 노래하고 있는 소리다.”

두 사람이 밑으로 내려와 보니 정말이었어요.

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빙 둘러싸고
마치 축제 처럼 춤추며 노래하고 있었죠.
그들의 새로운 신을 위해서 말이에요!

모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얼굴이 벌게졌어요.
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고
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죠.

모세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서 적어주신
말씀 돌판을 산기슭에서 던져버리고 말았답니다!

우지끈! 돌판이 두동강 나는 요란한 소리에
사람들이 모두 모세를 쳐다봤어요.
모세가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표정으로
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죠.
모세는 곧장 땅으로 내려와서 금송아지 상을
넘어뜨렸어요.

그걸 불 속에 집어 던져서 녹아버리게 만들었죠.
그리고 형 아론에게 소리쳤어요.

“형님, 도대체 백성들이 형님께 무슨 짓을
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으신 겁니까!”

아론은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이 없었어요.

“모세야... 사,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
하길래 그냥 금을 모아서 불에 던져봤는데
아, 나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
금송아지 모양으로 딱 하고 나오지 않겠니...”

그저 고민 끝에 궁색한 변명을 할 뿐이었죠.

다음 날,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갔어요.

**“하나님, 말씀하신 대로 었습니다.
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.
하지만, 하나님.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...
저들이 용서받을 길이 정말로 없을까요?”**

하지만,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너무나
큰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백성들이
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

**대신 모세에게
새로운 돌판을 깎아서 가져오게 하셨죠.**

**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
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약속을
설명해 주셨어요.**

**모세는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
돌판에 정성껏 새겼죠.
모세가 다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
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은
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.**

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했죠.

**“여러분,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사랑이
많으신 분입니다.
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
그 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
약속한 땅을 허락하실 겁니다.”**



죄를 지었다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
모세를 슬금슬금 피하던 백성들이
그제야 다시 모세 앞으로...
아니,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왔어요.

이미 한 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
백성들이었지만, 모세는 다시금
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전해주었습니다!